



光武二年三月八日 農商工部認可

皇城新報

每日刊行 第一卷 第四號

別報

◎(五百年有)복춘엿

던 녀중군즈 슈삼
 분이 기명상에 유
 지 하야 녀학교를
 설시 하라는 통문
 이잇기로 하도 놀
 남고 신기하야 우
 리 론설을 제각하
 고 외에 기제 하노
 라

대저 물이 극하면반
 다시 변하고 법이극
 하면 반다시 갓춤은
 고금에 썩듯하리치
 라 아 동방 삼천리
 강도와
 렬성조 오백여년과
 업으로 승평 일월에
 취포무스 하더니 우
 리
 성상 폐하의 외외탕
 탕 하신 덕업으로림
 어 하옵신 후에 국
 운이 더욱 성왕하야
 임의 대황데 위에어
 하옵시고 문명 기화

할 정치로 만기를 총찰 하시니 이제
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가 성의를
 효순하야 전일 히터흐 흥습은 영영
 브리고 각각 기명호 신식을 준행할
 시 스스이 취셔되여 일신 유일신 함
 을 사름마다 힘쓸 거시여늘 엇지하야
 일향 귀벽고 눈면병신 모양으로 구습
 에만 빠져 잇는노 이거시 한심한 일
 이로다 후자 이목구비와 스저오관 룩
 례가 남녀가 다름이 잇는가 엇지하야
 병신모양으로 사나히의 버러 주는 것
 만 안져먹고 평성을 삼규에 처하야 남
 의 절제만 밧으리오 이왕에 우리보다
 먼저 문명기화헌 나라들을 보면 남녀
 가 동등권이 잇는지라 어려서부터 각
 각 학교에 든니며 각종 학문을 다 비
 호아 이목을 널퍼 장성한 후에 사나
 히와 부부지 의을 결하여 평성을 살
 더리도 그 사나히의게 일호도 압제를
 밧지 아니하고 후대함을 밧음은 다름
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히와 못
 지 아니하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엇지
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슬프도다 전일
 을 생각하면 사나히가 위력으로 녀편
 네를 압제하라고 한갓 넷글을 빙자하
 야 말혀되 녀즈는 안에 잇셔 밧글 말
 히지말며 슬과 밧을 지음이 맛당하다
 허는지라 엇지하여 스저 룩레가 사나

히와 일반 이여늘 이긋흔 압제를 밧어
 세상형편을 알지못하고 죽은 사름 모
 양이 되리오 이저는 넷공규를 전폐하
 고 기명 진보하야 우리 나라도 타국
 파긋치 녀학교를 설립 하고 각각 녀
 아들을 보닉여 각항지조를 비호아 일
 후에 녀중군즈들이 되게 하옵스로방
 장 녀학교를 창설하오니 유지허신 우
 리 동포 형데 여러 녀중 영웅호걸 남
 네 들은 각각 분발지 심을 내여 귀훈
 녀아들을 우리 녀학교에 드려 보닉시
 라 하시거든 곳 착명 하시기를 브라
 나이다

구월일일 녀학교 통문 발괴인
 리소스 김소스

官報

●(官廷錄事) ○中樞院一等議官金在殷
 辭職疏 批旨省疏具悉宣告自在何必爲
 引勿辭行公 ○前司果金奭濟等言事疏
 批旨省疏具悉時措有古今之殊治具有緩
 急之異爾等之言太率易矣 ○北靑進士金
 學海等言事疏 批旨省疏具悉此非推卜
 朝廷之事令該道道臣從公查處 ○前主事
 姜熙朝言事疏 批旨省疏具悉所陳有可
 採矣 ○六品李晉永言事疏 批旨省贈具
 悉爾言亦好矣 以上九月五日